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여러분이 허공의 주인공예요”

#### 철야정진법문 ⑨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어. 또 그리 해야 돼. 그리 안 하면 큰일 나. 참말로 큰일 나. 그 시작이 없는 그 자리,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앞소식, 이 자리는 이진 절대의 자리거든. 이 절대의 자리, 이 절대의 자리가 뭐냐 할 것 같으면 허공의 주인공이예요.

대화 보살... 여신 받았죠? 그러니까 남자한테 지배를 받아. 지배를 받아도 누리의 주인공이여. 어쩔 도리가 없어. 나중에 또 그 몸 없애버릴 거여. 없애도 착착 정리할 줄 알아야 돼. 정리할 줄 모르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정리한다고 해서 그 자리 없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없어질래야 없어질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다시 한번 더...

수가 있는데 두말 할 것 없이 여러분 죽을래야 죽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그 자리, 여러분의 지혜 자리, 눈을 가지고서 보는 그 자리, 귀를 가지고서 듣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란 건 그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 뭐 없습니까? 물론 이것이 있음으로서 모든 법을 갖다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차차 얘기할 겁니다. 죽을라고 여러분이 소원을 세워 보세요. 몇천만 년 소원 세워보세요. 여러분 참말로 죽을 수 있다면 굉장한 인물들입니다. 석가세존보다 낫습니다. 석가세존 죽지 못해요. 석가세존 죽지 못해요.

그러하니 “그만 하십시오.” 그러하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허공의 주인공 아닙니까? 허공의 주인공. 왜 주인공이라고 하느냐. 허공은 지혜가 없거든요. 이젠 내 말입니다. 참말로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거든요. 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허공의 주인공 아니예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이 딱 하계 아놈이 굳어지면은 그뎨 문제 따릅니다. 문제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 살림이 파괴되고, 그럴수록 가정은 더 좋아. 가정은 더 좋은 겁니다. 하니까 어떻게 오늘 요 시간에는 허공의 주인공이다. 몸은 내의 관리물이다 소유물이 아니다. 이거 제일 첫째 이거 알아야 되고 여러분은 허공의 주인공이다. 허공이라 했나, 뭣이라 했나? 뭐라고 써냈는고? “삼계.”

삼계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계시지 않나? 부처님 있지. 왜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부처가 있어? 부처가 없는데 내가 있어?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의 역할이 있어. 의무가 있어. 나는 나로서 의 그러나 허공의 주인공으로서는 삼계의 주인공으로서는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 하시오.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럼 나중 시간에 그거 하겠습니까. 이거 아닌 게 아니라 몇 년 해도 괜찮습니다. 좌우간 어쨌든지 사람이라는 건 말이지 이 육신은 내의 관리물이지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이걸 뒷받침하는 것이 눈이 보는 것 아니고 귀가 듣는 것 아니고 혀바닥이 맛보는 것 아니냐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우주와 나는 하나다”

#### 4-8 귀경례

또 문(門)을 의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연 어떤 수행문(修行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 여래(如來)가 세운 수행문은 대단히 많아 과연 어떤 문에 의지하여야 여래가(如來家)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이런 것도 실상은 해결할 수 없는 부질없는 의심이다. 문에 대한 의심은 다음의 적당한 방법으로 풀어 버려야 한다.

우주와 나는 하나다. 그러므로 무아(無我)다. 먼저 이러한 명제(命題)에 의하여 나를 살펴 보기로 하자. 나를 거슬러 올라가 추궁해 보면 거기엔 무수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나의 두 부모, 두 부모의 각기 두 부모씩인 네 부모, 네 부모에서 여덟 부모, 여덟 부모에서 열여섯 부모, 서른 두 부모, 예순네 부모..... 하는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조상의 수량에 압도되어 버리는 나를 보리라. 그 막대한 조상들의 퇴적인 물구나무선 피라미트와 황적인 엄살감을 생각할 때 나란 존재는 그만 짓눌려 부셔져 버리고 말 것만 같다. 다시 미래의 자손의 분상에 의하여 붕괴되는 나의 모습에 눈을 돌려 보라. 이것은 보다 더 많은 기하급수적인 종대의 분산 과정으로 한량 없이 퍼져 나가 이내 전 우주는 수십억만명의 나에 의하여 팍차 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듯 나를 시각적으로 고찰한다면 동체의식(同體意識)이란 마치 물 속에 녹아버린 각설탕 같아서 아무 데서도 나를 볼 수가 없으면서 실상인즉 이 우주 안에 어느 곳이나 내가 없는 곳이 없는 것이다. 나의 존재는 이렇듯이 금방 없어져 버리며 무수한 존재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또 공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 경상남도 사천군 곤명면 용산리 봉명산 다솔사 행원방(行願房)에 있다. 행원방 어느 장판위에 이렇듯 내가 동그마니 앉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구와 떼어 놓을 수 있느냐? 또 이 지구를 우주 상층의 태양계의 태양이 공전하는 그 궤도의 테두리 안에서 떼어 놓을 수 있느냐? 나의 존재를 엮고 있는 이 우주적인 위치란 것은 이렇듯이 거시적(巨視的)인 막대한 량으로 어느 하나를 떼어 놓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이 팍 달라붙어 우주의 광대무변한 넓이로 퍼져 나갔

으므로 이를 생각한다면 바늘 끝만한 점 하나의 위치라도 나의 것이라고 할만한 자리는 없는 것이다. 나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밭 다닐 곳이란 이 우주 안에선 아무리 찾아보아야 아무데도 없는 것이다.

이렇듯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는 종횡으로 얽혀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며 나 자체란 있는 듯이 없는 것이며 없이는 뜻이 있다는 자각을 갖는다면 ‘나’ 라는 개체(個體)는 결코 동떨어져 고립된 것이 아니고 사회 기구의 혜택을 받고 그리고 직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청하여 일심관(一心觀)이라, 대사회성(大社會性)이라, 또는 대승(大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은 문(門)의 의심을 푸는데 마련되어야 할 선행조건이다.

참선에서하는 지의 목적은 통찰력을 얻는다는 것, 즉 관이다. 지는 어디까지나 과정이요, 프로세스이지,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다. 목적은 관이다. 사물을 꿰뚫고 보아 잘 알고 잘 처리해 나가야 중생을 건지든지 자신이 부처를 이룩하던 지 할 것이 아닌가.

관(觀)하는 사람은 첫째 법집(法執)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내가 아는 것, 나의 이데올로기에 붙들리어, 멸통한 눈으로 끌러다니는 해괴한 관은 시정해야 한다. 삼계유일심(三界唯一心)이라고 하니 까이 마음 심자(心字)를 옮겨 해석을 못 하여서 그것이 바로 소박하게도 마음이 라는 줄 알고 ‘마음이 없으면 산도 강도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론적(認識論的)인 착오를 저지르는 이가 버섯이 우리 불교계에 활보하고 있다. 그 자신의 마음이 없다고 어떻게 산이 없어진단 말인가? 이런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망상이지 도무지 통찰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관이 없으면 이러한 오류에 빠진다. 지와 관을 떼 놓지 않고 함께 수련해 나가는데서 우리는 운용의 묘(妙)를 터득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것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주최·원화 재정부)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임이다.

## 양지 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 마기목

대진스님(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기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병원에서 마기목 지팡이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기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기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 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향 마기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초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기목, 효능 방영
- 2013년 10월 6일 수요일 - KBS1 TV 05시 50분 내고향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기목 효능 방영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해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리를 굽게 하여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보혈, 산기(산기),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르신들 풀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기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민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유제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에게 대중공양하실 분자님 연락바랍니다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처 : 규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제 00619호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학장토희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